

본지 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 불기협 기자상 대상 수상 '2관왕'

2015 언론문화상 신문 최우수상에 이은 '쾌거'

본지 연중기획 '광복 70년, 불교 70년'이 2015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는 2015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쾌거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상식)는 11월 23일 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권탄준, 급강대 명예교수) 회의를 열고, 접수된 10작품(기획·해설부문 7개, 취재·보도부문 3개)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현대불교신문사 신성민·노덕현 기자의 '광복 70년, 불교 70년'을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 법보신문 김현태 기자의 '김현태가 만난 시니어불자'를 기획·해설부문, BTN불교TV 장수정·이리나 기자의 '2015 장애인 날(6회 연재)'을 취재·보도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본지 기획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광복70년 후 지금까지 불교가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심층 취재 기사로서 한국불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상세하게 조사, 연구,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는 권탄준 급강대 명예교수, 신진욱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손희재 수원시정연구위원장이 맡았다.

이에 앞서 불교기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기선)는 18일 회의를 열고, 밀교신문 이재우 편집국장장과 불교플러스 박선영 취재부장을 20주년 근속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 7일 오후 7시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관에서 열린다. **윤호섭 기자 sonick027@hyunbul.com**

“부처님 해명 잇고 광도중생하라”

조계종, 23일 대덕·혜덕 및 중덕·정덕 법계 품서식

조계종 2·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에 대한 법계 품서식이 열렸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11월 23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각각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덕·혜덕, 중덕·정덕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계를 받은 스님은 대덕 36명·혜덕 19명, 중덕 171명·정덕 167명 등이다. 대덕·혜덕 품서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덕·정덕 법계 품서식에서 종정 진제 스님은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대도를 성취하고 말씀하신 태산같은 그 기상과 바다같은 신심으로 불문에 들어와 세상은 멀리하고 오직 각고의 정진으로 오늘에 이르렀음에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위치에 있다”며 “출가할 때의 초심을 다시 다져서

대자비심으로 서원을 다시 세우고 각자의 수행과 중생제도에 전력하여 부처님의 해명을 잇고 광도중생하고 불법홍포에 나서기를 기원한다”고 설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부장 지현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출가한지 10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불퇴전의 원력으로 오늘에 이른 스님들의 정진에 격려를 보낸다”며 “이제 여러분은 중단의 중추다. 한국불교 중흥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은 전법도성과 종단화합·발전, 불법홍포의 서원을 시달했으며, 이에 대해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불조의 해명을 잇고 화합과 수행으로써 중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11월 23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각각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덕·혜덕, 중덕·정덕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지방분권화 시대, ‘공동체’를 생각하자”

조계종, 마지막 100인 대중공사 ‘지역불교 발전’ 논의

한국사회의 행정 체계는 지방분권이 아니다. 약 200여 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돼 지역 민의에 따라 행정이 이뤄진다. 불교 역시 이를 비껴갈 수는 없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역 불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중공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1월 25일 태화산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사찰과 지역공동체,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는 72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대중공사는 효율적 토론과 논의를 위해 모든 토론을 생각하고 종합토론에 역량을 집중했다. 약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사찰 역할과 공동체 복원, 복지 프로그램 다각화 등의 방안들이 쏟아졌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범 스님은 “불교 교리를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포교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 삶의 현장에서 감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내가 있는 실상사의 경우 남원에 소재하고 있다. 이곳 인구는 9만 명에 못 미치며 종단 사찰, 암자는 15곳 정도다. 지역사회에서 불교가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교세 확장이 아닌 대안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길 지혜협동조합 이사장은 공동체의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유 이사장은 “사회는 갈수록 지역분권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공유사회 등에 주목

하고 있다. 불교가 이런 운동에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고 정부도 관련 법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면서 “귀농·귀촌 인구에게 불교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게 하는 등 공간을 제공한다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은 신앙 공동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관 스님은 “사찰에서 스님들은 상당히 권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찰은 신앙을

지역불교, 공동체 정신 향유해야

귀농·귀촌인 결합해 지역에 일조

지역 특성 살린 복지사업 필요해

공동체로 한 공동체를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다. 신앙공동체로서의 사찰이 바로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각회 이사장 해충 스님은 “본사별 학교 건립이나 말사별로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사찰 1복지시설·교육시설을 운영한다면 지역 발전에 큰 일조를 할 수 있다. 그 바탕 위에서 공동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장 현승 스님은 “전국 단위로 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시, 기초지자체 단위 별로 포교를 펼치는 것보다 5000



조계종은 11월 25일 태화산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사찰과 지역공동체,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명 단위로 하나의 불교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면서 “교구분사, 지역사찰별 특성을 살리면서 인구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도시 중심으로 교회를 펼치고, 그 지역사회를 위한 보살행, 행복을 추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총회 부의장 오십 스님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구축에 공감한다”면서 “나이에 맞는 계층포교 등 다양한 포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시 사찰과 농촌 사찰의 유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은 “지역 본사에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사찰 간 연합이 힘들다”고 상황을 토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제나 위령제, 산신제 등 불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점하고 그것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문제 해결 나설 것”
이에 앞서 열린 9차 대중공사 입재식에

서는 그간의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동국대 발전을 위한 화쟁원탁회의’ 구성하고 동국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경과 보고에서 “대중공사 상임추진위원회는 11월 24일 학교, 학생,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함께 참여하는 ‘동국대 발전을 위한 화쟁원탁회의’를 구성했다”면서 “이 논의기구에서 학교 발전과 갈등 해소를 위해 제반사항을 성역 없이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회의 후에는 단식 42일차를 맞은 김건중 학생의 단식 종단을 위해 동국대를 방문했고, 이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의제 논의를 마무리했다. 12월 1일에는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공개 좌담회가 열리며, 12월 14일에는 공식적인 회향식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공주=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군포교 진흥위해 사용해주세요

진흥원, 군중교구에 지원금 1억 원 쾌척

불교TV도 2000만원 전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사진)은 11월 25일 2015년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군중교구(교구장 정우 스님)에 군 포교 진흥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는 격지 및 오지부대 포교, 장병 수계 법회, 군승 연수 및 교육, 군 내 독서카페 조성, 불서 지원 등 군 포교 활동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진흥원 김규철 이사장(사진)은 “군포교 불교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장병들



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안정된 군 생활과 군부대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젊은 인재양성 불사에 더욱 정진해 달라”고 군중교구에 당부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군 불교 진흥을 위해 군중교구에 매년 군 포교 진흥기금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BTN불교TV(대표이사 구분일)와 불교TV무상사(회주 성우)는 11월 21일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교구장 정우)에 9사단 백마부대 신병교육대 내 법당 일승사 건립불사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낙성법회를 봉행한 백마 일승사는 지난 2월부터 군중교구와 군법당 22곳, 범어사와 여래사 등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심시일반 모연해 석가모니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봉안한 약 400㎡ 규모의 법당건립을 시작하고 21일 낙성했다.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은 “불자장병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법회에 동참할 수 있게 부대 내 법당시설을 개선하는 데 불자들의 관심이 늘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송광사 차기 주지 진화 스님 추천

24일 임회 개최, 만장일치 결의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상) 11월 24일 오후 2시 송광사 목우헌에서 동안거 결계 임회를 갖고 차기 주지로 진화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정월 25명 가운데 17이 참여한 이날 임회는 안건으로 종무보고, 신임주지 추천 등을 의결했다.

진화스님은 보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공주 증심사 주지, 서울 봉은사 주지를 역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도 여러분께 곱합니다.

宗正예하에 대한 불경죄(不敬罪)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맙시다.

종헌 제 23조 <宗正은 본종 종풍거양의 표상으로서 종통을 계승하여, 종단의 신성(神聖)과 존엄의 최고 권위(權威)와 지위를 가진다.>

종정예하께서는 종헌의 규정에 의하여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시는 것은 불교계의 오랜 전통(傳統)이며, 불문율(不文律)입니다.

그런데 종정예하의 유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종헌·종법상 권한 없는 말씀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자식들의 잘못을 꾸짖고 타이르는 아버지의

말씀에 맞서거나 대들거나 심지어 아버지를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면, 그 자식은 불효자로서 배은망덕한 패륜아로 취급을 합니다.

작금에 총무원측에서는 ‘총무원 총무회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모임(?) 이름으로 <종정예하의 유시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을 한국불교신문에 발표하였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종정예하의 유시에 대해 알가알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총무원측의 무자격자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해일스님)는 종단의 분열(分裂)과 불화(不和)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제 14대 중앙총회의원선거 관련 총무행정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태고종도들이 화합동참하여 종단을 정상화한 이후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제 14대 중앙총회의원선거를 시행함으로써 전종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애중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원측에서는 老衲와 백련사에 대하여 승려신분과 사찰 지위가 무자격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련사에서는 2013년 11월 5일에 3000만원의 성금을 총무원(당시 이도산 총무원장)에 납부하고, 총무원과 이전까지의 모든 백련사 공과금(사찰분담금, 재적승려의무금 포함)을 해결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련사 주지 동허스님이 총무원 총무특보(임명일 2013년 11월 12일, 임명번호 제 15549호)로 임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老衲은 현 총무원사(전승관) 건립에 성금 1억원 (2008년 3월 31일 입금)을 납부하였고, 종보인 한국불교신문 제 622호(2014년 5월 2일자)에 승정원 승정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현혹 당하지 마시고, 종단 정상화에 애중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1일

한국불교태고종 정상화추진위원장 홍 인곡